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빅3' 이정은(가장 왼쪽부터), 김지현, 김해림

# KLPGA 하반기 레이스 돌입

‘이정은·김지현·김해림’ 여왕 자리 놓고 3과전 메이저 4개 대회·LPGA 투어 등 굵직한 대회 줄이어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2주간의 달콤한 휴식을 끝내고 내일 열리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하반기 일정에 돌입한다. 상반기 KLPGA 투어는 18개 대회 중 14명의 다른 우승자가 탄생하는 등 절대 강자 없는 '춘추전국시대'였다. 8개 대회에서는 생애 첫 우승자가 탄생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대상포인트 1위 이정은(22·토니포), 상금 순위 선두 김지현(26·한화), 두 부문 선두 탈환을 노리는 김해림(28·롯데) 등 '빅3'의 활약은 단연 돋보였다. 여왕 자리를 놓고 이들이 펼치는 경쟁은 KLPGA 하반기 레이스의 가장 큰 볼거리다. 지난해 신인왕 이정은(22·토니포)은

지난 4월 '롯데렌트카 여자오픈'과 상반기 마지막 대회인 '문영 컨즈파크 챔피언십'에서 정상에 오르며 2승을 거뒀다. 이정은의 하반기 목표는 대상포인트 레이스 선두 사수다. 현재 316점으로 2위 김해림(28·롯데·274점)과 3위 김지현(26·한화·255점)을 제치고 대상포인트 부문 1위를 달리고 있다. 이정은은 15개 대회에 참가해 무려 11개 대회에서 '톱10'에 오르는 등 꾸준한 상위권을 지켰다. 지난 4월 'KG·이데일리 레이디스 오픈'에서 늦깎이 데뷔 첫 승을 신고한 김지현은 6월 '에스오일 챔피언십'과 '기아차 한국여자오픈 골프선수권대회'를 연속 제패하며 가장 먼저 시즌 3승 고지를 밟았다. '조정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에서 준우

승을 하는 등 뜨거운 6월을 보낸 김지현은 상반기 17개 대회에서 6억7706만원의 상금을 수확해 이 부문 1위다. 대상포인트 2위, 상금순위 3위의 김해림도 3월 '월드 레이디스 챔피언십'과 5월 '교촌 하니 레이디스 오픈'에서 일찌감치 2승을 거두며 절대강자의 지위를 얻는 듯했다. 그러나 '부진의 매니저' 폭행으로 구설에 오르며 한 동안 주춤, 우승을 추가하지 못하며 이정은과 김지현에게 다소 밀리는 모양새였다. 국내 대회 부진 속에 7월 초청선수 자격으로 출전한 '사만사 타바사 걸즈 컬렉션 레이디스 골프 토너먼트'에서 깜짝 우승하며 하반기 기대감을 높였다. 하반기 KLPGA 투어의 또 다른 관전 포인트는 '프로길러' 최혜진(18·학산여고)의 프로 데뷔다. 아마추어 무대를 휩쓴 최혜진은 '조정 탄산수 용평리조트 오픈'에서 초청선수로 참가해 쟁쟁한 프로 언니들을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올렸다.

최혜진은 LPGA 투어 최고 권위를 자랑하는 'US여자오픈'에서 아마추어 돌풍을 이어가며 준우승을 차지,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 모았다. 최혜진은 자신의 생일인 이날 23일 프로 전향을 앞두고 있다. 31일부터 열리는 총상금 14억원 규모의 메이저대회 '한화 클래식'을 통해 프로 데뷔전을 치른다. 3승의 김지현을 필두로 이지현(21·문영그룹), 김지현(26·롯데) 오지현(21·KB금융그룹) 등 6승을 합작한 '지현은 하반기 승수 사냥에 나선다. KLPGA 투어 하반기 레이스는 11일 제주 오라컨트리클럽에서 열리는 '제주 삼다수 마스터스'를 시작으로 12개 대회가 열린다. 이 가운데 하반기 4개 메이저 대회를 앞두고 있다. 이달 말 '한화 클래식'을 시작으로 9월에는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이스그룹 제3회 KLPGA 챔피언십'과 'BMW 레이디스 챔피언십'이 열린다. 10월과 11월에는 'KB금융 스타 챔피언십'과 '하이테크 챔피언십'이 진행된다. 이들 4개 대회에 걸린 총 상금만 42억원이다. 메이저 타이틀이 누구 손에 들어가느냐에 따라 대상포인트와 상금순위가 크게 요동칠 전망이다.

/김민근기자



## 레알 마드리드, 맨유 꺾고 2년 연속 슈퍼컵 우승

레알 마드리드(스페인)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잉글랜드)를 꺾고 2017 유럽축구연맹(Uefa)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다. 레알 마드리드는 9일(한국시간) 마케도니아 스코페에서 열린 맨유의 슈퍼컵에서 2-1 승리를 거뒀다. 지난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팀 자격으로 이 대회에 나선 레알 마드리드는 유로파리그를 제패한 맨유를 따돌리고 2년 연속 정상에 올랐다. 레알 마드리드는 통산 4번째 우승으로 FC버셀로나(스페인), AC밀란(이상 5회·이탈리아)의 최다 우승 기록에 바짝 다가갔다. 맨유는 28년 만의 정상 복귀가 무산됐다. 1999년과 2008년에 이어 세 번째 준우승이다. 프리시즌을 통해 컨디션을 끌어올린 두 팀은 주전급 선수들을 대거 부임해 서로를 상대했다. 레알 마드리드에서는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를 제외한 주축들 대부분이 선발 명단에 포함됐고, 맨유는 이적생 로멜루 루카쿠를 필두로 공격진을 꾸렸다. 레알 마드리드는 전반 24분 선제골을 가져갔다. 2선에서 다니엘 카르발함이 살짝 찍어 찬 공을 넘어지면서 원발로 마무리했다. 전반 16분 헤딩슛이 골대를 때리면서 아쉬움을 남긴 카세미루는 이 한 방으로 분위기를 바꿨다. 맨유의 공세를 실점 없이 막은 레알 마드리드는 후반 7분 이스코의 골로 2-0을 만들었다. 이스코는 2대1 패스로 맨유 수비진을 완벽히 무너뜨렸다. 맨유는 후반 17분 루카쿠의 골로 추격을 알렸다. 하지만 추가 득점을 올리지 못하며 그대로 무릎을 꿇었다.

/김민근기자

## 이정재, 오컬트 영화 '사바하' 출연

배우 이정재(44)가 영화 '사바하'(감독 장재현 감독)에 출연한다. 9월 영화계에 따르면 이정재는 최근 '사바하' 출연을 결정하고 계약 세부 사항을 논의 중이다. 영화는 신혼 종교의 비밀을 추적하는 이야기를 담은 오컬트물이다. 이정재는 주인공 '박용재' 목사를 연기한다. 이번 작품은 이정재의 출연과 함께 장재현 감독의 신작으로 주목받는다. 장 감독은 2015년 내놓은 데뷔작 '검은 사제들'로 544만 관객을 끌어모으는데 성공해 단숨에 흥행 감독 반열에 올랐다. 영화는 캐스팅을 완성한 후 이르면 11월부터 본격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뉴시스

## 여자친구 새 앨범, 빌보드 월드 차트 10위 진입

그룹 '여자친구'의 새 앨범이 미국 빌보드 월드 앨범차트 10위에 올랐다. 9일 빌보드에 따르면 '여자친구'의 다섯 번째 미니 앨범 '패럴렐'(PARALLEL)은 데이지비드 말도나도, 미스터 이지의 새 앨범에 이어 차트 10위를 차지했다. '여자친구'는 지난 1일 새 앨범을 내놨다. 타이틀곡 '귀를 기울이면'은 공개 직후 국내 각종 음원 순위 1위를 차지하기도 했다. 이번 신곡은 '여자친구' 특유의 청순하면서 파워풀한 목소리가 돋보이며 가사가 인상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뉴시스



## 정용화, 일본서 두 번째 솔로 앨범 '서머 콜링' 발표

밴드 '씨엔블루'의 정용화(28)가 일본에서 두 번째 솔로 앨범을 발표했다. 9일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에 따르면 정용화는 이날 새 앨범 '서머 콜링'(Summer Calling)을 내놨다. 이번 작품은 2015년 일본 첫 솔로작인 '어느 멋진 날'(ある素敵な日)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내놓는 앨범으로 여름에 어울



/뉴시스

리는 8개곡이 담겼다. 타이틀곡 '서머 드림(Summer Dream)'은 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만들어주는 댄스곡이다. 앞서 공개된 '서머 드림' 뮤직비디오에서 정용화는 일본의 신예 모델 로렌 사이와 함께 연인으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한편 정용화는 22일 오사카 페스티벌을 공연을 시작으로 4개 도시에서 9회에 걸쳐 라이브 투어 'JUNG YONG HWA JAPAN CONCERT 2017 Summer Calling'을 열 예정이다.



# 본인이 **똥똥**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쏙 빼수 있습니다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mailto:ndtherapy119@gmail.com)